| 현불 논단 |

정치 발전과 三正道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내년 대선 앞두고 후보 경쟁도 심화
석학슘페터 "선거=민주주의"를 강조
선거과정 혼돈이면 민주주의 무너져

'대선 우울증' 용어 나오는 상황에서
무관심이 많아지면 민주주의 장애도

正見 · 正語 · 正業 불교의 윤리 핵심
후보, 바른 견해로 말하고 행동하길

내년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의 품새를 뽐내며 춤을 추고 있다. 춤은 축제의 마당에서 뺄 수 없는 장이다.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선거는 꽃이며 축제이다.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조세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하여 공직을 차지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제도적인 장치' 라고 묘사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를 선거와 동일 시하고 있다.

선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선거의 과정이다. 선거의 과정이 엉망이면 민주주의 실현도 엉망이다. 이를 어쩌랴. '대선 블루(우울증)' 용어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의 원인은 '좋은 사람' 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 을 선택해야 하는 가슴앓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 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 시민의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선거의 다양한 기능 중 중요한 것이 정치 교육, 즉 민주 시민교육이다. 선거운동 과정은 정치와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와 평가,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의 과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무관심과 소외가 심할 때는 선거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 정치 발전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국민의 대선 우울증 증상이 걱정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불교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붓다가 출생한 나라는 공화정의 성격이 많은 나라로 추정된다. 또한 불교의 승단 조직과 운영은 어느 종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많다. 〈유행경〉의 내용을 보면 붓다의 정치관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붓다 재세 시 중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마가다국의 아자타삿뚜(한역 아사세)왕은 작지만 강한 부족국가 밧지국을 침략하고자 하였다. 그는 전쟁에 앞서 대신 우사를 기원정사에 보내 붓다께 의견을 구한다.

"밧지국을 공격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붓다는 직답하는 대신 옆에 있는 아난에게 오히려 질문한다. "아난아,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의논하여 정사를 결정한다고 들었느냐?"

아난이 답한다. "예, 부처님,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난아, 그렇다면 그 나라는 날이 갈수록 왕성하여 오래도록 안온할 것이니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질문을 비롯하여 붓다가 던진 7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칠불쇠법(七不衰法)' 이다. 이 칠불쇠법을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다. 칠불쇠법에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시민의식과 정치 윤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붓다는 칠불쇠법을 마치고 왕사성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불러 이와 결이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던져 불교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을 7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자들과 작별하고 80노구를 이끌고 쿠시나가라까지 열반의 여정을 떠난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다.

붓다는 삶의 고해를 넘는 바른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했다. 이 팔정도 중 셋을 선택해 삼정도, 즉 정견(正見), 정어(正語), 정업(正業)이 바로 불교 정치 윤리의 핵심이다. 칠불쇠법도 바로 삼정도의 실행이다. 한국의 정치 발전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성공을 위해 정치인들이 삼정도의 가치를 실천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삼정도를 쉬운 말로 풀어 다시 강조해 보자.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행위 이것이 바로 '삼정도' 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불교와 비폭력

누구나 알다시피 불교는 비폭력의 종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폭력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붓다가 제시한 비폭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가 폭력과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붓다의 초기 가르침을 필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붓다는 폭력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폭력을 비판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 게다가 마음에서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폭력을 반인간적인 죄악으로 보며,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건전한 기초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도덕과 윤리가 기반이 된 〈법구경(Dhammapada)〉과 〈전륜성왕 사자후 경(Cakkavattisīhanada Sutta:轉輪聖王師子吼經)〉 등 많은 경전을 통해 불교의 비폭력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학대는 정신, 언어, 신체 등 어떤 형태로 가해지든, 또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모두 '폭력' 의 잠재적인 예시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만연해 있고 상좌부 불교를 수행하는 미얀마, 스리랑카도 예외가 아니지요. 특히 현대 사회의 구성원을 위협하는 폭력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며, 그 행위자도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족 갈등 문제와 관련된 폭력의 현대적 양상은 맥락이 워낙 복잡해서 그 근본 원인을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재 스리랑카의 폭력 문제는 대부분 하나의 원인을 통해서 진단돼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경제적 가난이나 공산주의자의 정치 운동, LTTE(스리랑카 타밀반군)의 테러 행위 등으로 인한 폭력 발생의 원인과 유형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스리랑카가 상좌부 불교의 핵심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지난 40년간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 정부군이 자행한 폭력이 존재해 왔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근본적으로 위배된 행위들이지요.

민족 갈등은 서양 식민 통치가 만들어 낸 차별 사회의 결과지만, 다행히 불교적 가르침으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단다왁가(daṇḍa vagga)에 따르면 불교는, 만인은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나 자신을 타인과 동일 시한다면, 결코 누군가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불교는 폭력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 전제는 인과적인 관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는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상호 의존 관계에 따라 폭력이 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 불교는 그 원인을 분석해 폭력적 맥락을 비폭력적 사회적 현실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제시됩니다.

불교야말로 세계적으로 비폭력 운동을 이끌 수 있는 종교입니다. 폭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도들이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위드코로나' 시대의 불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코로나' 형태로 변경되면서 불교계 일상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조계종이 11월 1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 에 따르면 법회와 행사 시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국 내내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대면법회와 대면행사 등이 다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 정기법회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백신접종완료자' 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 없이 수용 가능하며,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외에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2년간 지속됐던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진 불자들이 다시 대면 형태의 신행생활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정부분 대면 활동에 활기를 띠더라도 기존 비대면 방식과 공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은 이제 불교계가 직면한 또 하나의 과제가 됐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보다 더 효율적인 전법과 포교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사찰의 특성에 맞는 세대별 전략도 필요하다. 위드코로나 사태, 불교계는 과거로의 회귀를 기대하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고민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진 것을 기회로 삼아, 더 발전된 형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K-불교' 우수성 알리는 계기를

11월 4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충무로 영상센터 신관에서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불교학술원 산하에 설립된 'K학술확산연구소' 는 지난 7월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하는 'K학술확산연구사업' 에 최종 선정된 결과이다. 연구소는 향후 2026년까지 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연구 ·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 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불교의 국제성을 알리는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영상 콘텐츠 강의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점이다. 72분 분량의 온라인 강의는 매년 100개 씩 5년 동안 500개가 제작된다. 제작된 강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시스템인 K-MOOC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고 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강의인 만큼 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로 강의가 진행되거나 자막이 제공되는 점도 의미가 있다. 관심만 있다면 한국불교의 면면을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K-팝을 시작으로 한국문화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아이콘이 됐다. 대승불교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1600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세계인이 주목하기 충분한 정신문화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불교는 전 세계에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학으로서 불교를 글로컬리티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번 연구는 한국불교학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에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가 5년 동안 선보일 500개 온라인 영상 강좌는 한국불교의 면면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양질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학과 한국불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탄)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성사
• 법 명 : 보광 (속명 : 정의순)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8번지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